

# 우리나라 양통집의 平面에 대한 研究 (完)

金 鴻 植 (금성종합설계공사)

## 목 차

- (1) 개 론
- (2) 전(田) 자집
- (3) 6칸집
  - ① 영동형
    - ㄱ. 마루집    ㄴ. 구들집
  - ② 안동형
    - ㄱ. 마구간이 있는 마루집
    - ㄴ. 마구간이 없는 마루집
    - ㄷ. 마루가 없는 집
  - ③ 중간형
    - ㄱ. 퇴 사랑방집 - 중부내륙
    - ㄴ. 정지방집 - 남부내륙
    - ㄷ. 근세형집
- (4) 8칸집
  - ① 칸수만 증가된 집
  - ② 한쪽 부엌집
  - ③ 가운데 부엌집
    - ㄱ. 외양간이 있는 집
    - ㄴ. 외양간이 없는 집
    - ㄷ. 살림방을 놓은 집
  - ④ 정주간이 있는 집
- (5) 살림방이 증가된 집
  - ① 정주간이 없는 집
  - ② 정주간이 있는 집
- (6) ㄱ자 모양집
- (7) 사랑방집
- (8) 결 론

### (4) 8칸집

#### ① 칸수만 증가된 집

이 집은 그림 12(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백촌리 최 태호씨 태·75년 8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동형 마루집과 평면의 간살이가 거의 같으나 가운데의 마루와 안방이 좁다. 이 집은 농가로서 부엌 앞에 <마구간>이 ㄱ자 모양으로 시설된다. 이것은 구조상 몸체의 서까래를 그대로 이어내려 만들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곱은자집과는 다르며, 이러한 수법은 오래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집의 방위는 정남향이고(동해안에는 정남향집이 많다.) 구조는 3평주 3량집으로서 양통집의 특색을 보이며, 지붕은 초가이엉에 합자구조로 처리되었다.

정지간은 밥을 하는 부엌공간과 작업을 하는 봉당공간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뚜막이 안방 부분에만 시설된다. 바깥 측벽에 선반이 만들어 지고 출입하는 문들은 앞과 측벽, 그리고 뒷벽에도 시설된다. 마구간은 부엌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비껴서 만들어 지고 바른베모꼴 모양이다. 바닥은 봉당보다 낮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에서는 몸체의 용마루를 높게 하여 같은 높이로 이용하고 있다.

마루는 봉당쪽으로만 개방되어 있고 안방과 사랑, 그리고 바깥과는 외여닫이문으로 연결된다. 안방은 두 칸 크기의 마루보다 더 큰 반면 도장은 6칸 집에서의 크기보다 작다. 이 집 역시 영동지방의 특색을 보여 사랑이나 마루 앞에 쪽마루가 시설되지 않고 좁은 뜨락만이 만들어 진다.

이 집은 조사 당시(1975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간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으나 뒤안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앞마당이 도로와 분리되어 만들어져 있어 농가의 특색을 보여 준다. 앞마당에는 담장이 없고 전면에 통로를 두어 출입하며, 그 옆에는 변소간을 두고 있다. 마당에는 짚가리와 텃밭이 한쪽으로 놓여진다. 뒤안의 양 옆으로는 담장을 쌓고 뒤는 산자락과 연결함으로써 해서 앞마당과 구분되는 폐쇄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나무를 심어 외부로부터의 시선과 햇빛을 막도록 하였으며 가운데 뒤쪽으로는 장독대가 놓여진다. 이러한 집은 앞선 시대의 경우, 잘 사는 계층의 집으로 이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며 지금은 중농계층의 집으로서 중부 내륙지방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면구성이 태백산맥 서쪽으로 넘어 가면 보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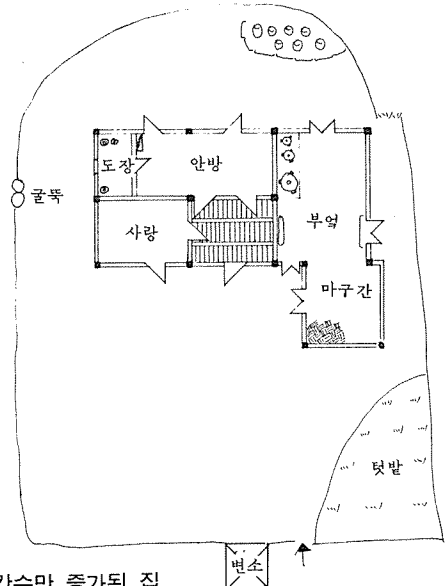


그림 12 : 칸수만 증가된 집

면으로 개방되는 경향을 보여, 가운데 마루가 품은자집의 뒷마루와 대청이 결합된 것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그림 13(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암리 김 동선씨택·76년 11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설명한 집과 똑같은 간살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4칸집이라고 부르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후자의 형태는 4칸 뒷집과 동해안의 양통집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면의 간살이는 위에서 설명한 집과 거의 같으나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다르다. 그것은 부엌과 마루가 벽으로 막아져 있으며 두 공간의 연결은 부엌 대문을 통해서 외부와 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엌은, 전자의 봉당기능이 마당으로 나가고 부엌 뒤쪽 부분은 취사공간으로, 앞쪽은 조리와 상보기 공간으로 쓰여진다. 안방과 부엌 사이의 부뚜막 상부에도 벽장을 만들었고 부엌의 바깥쪽 벽에도 벽장을 덧달아 나무의 저장과 찬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자는 안방이 마루보다 크지만, 이것은 안방이 조금 작다. 후자는 전자의 도장공간을 옷방이라 부르는데, 이곳은 도장과 용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도장은 수장공간임이 강조되는 반면, 옷방은 잠자리를 겸용하는 예비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도장에는 외부로 직접 출입하는 문이 없지만 옷방에는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 만들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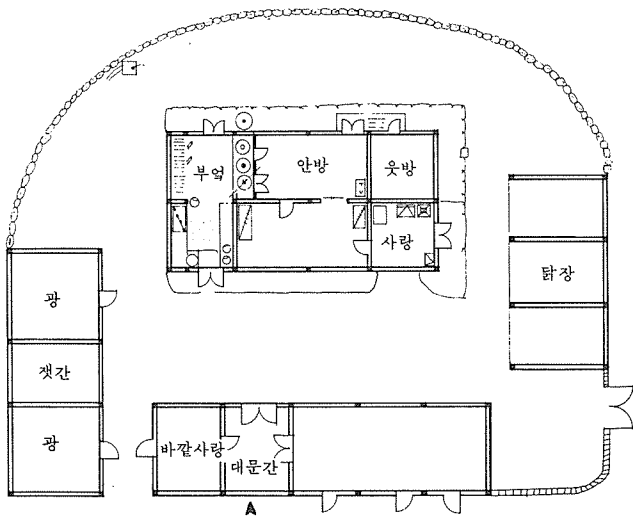


그림 13 : 칸수만 증가된 집

뜨럭(토방)은 영동지방의 경우 전면에만 시설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서지방에서는 4면 내지 3면에 정확하게 만들어진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외양간을 부엌에 걸달아서 짓는 경우란 드물며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사랑채에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종합하면 평면 간살이는 영동식이지만 시설 및 설비는 영서지방의 다른 집과 연결되고 있다.

이 집의 마당 건너편에는 한일(一)자 모양의 행랑채가 두이(二)자 형식으로 나란히 배치되고, 그 모퉁이에 걸쳐들이 지어져 있다. 행랑채에는 대문간과 바깥사랑, 그리고 한쪽으로 헛간이 만들어 지는데 현재는 잡사(糶舍)로 쓰고 있다.

구조는 맞걸이 3량 빗집으로서 제치장 반자로 처리되었다. 마당 왼쪽 모퉁이에는 헛간채가 세로로 배치되어 광과 헛간으로 이용되고 오른쪽에는 닭장과 광이 만들어져 있다. 집 뒤에는 헛간채까지 담장이 둘러 쳐져서 뒤안이 놓여지고, 여기에 펌프를 시설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뒤안은 앞마당과 서로 터져 있어 공간이 서로 이어진다. 사랑채 밖에는 바깥마당이 있고 변소는 이곳에 따로 놓인다.

안채의 구조는 3평주 5량집으로, 영동 지방과 중부지역의

구조방식이 결합된 구조를 보이며 또한 덧서까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부 내륙지방의 한 특성이다. 방위는 동향이다. 이런 집들은 1950년대 이후,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3칸 겹집의 비좁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중부 내륙지방에서 중농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평면형태라고 한다.

② 한쪽부엌집

최근에는 방을 크게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전에는 방 하나를 한 칸 크기로 하는 수가 많았다. 설사 두 칸을 한방으로 쓰더라도 사이에 분합문을 두어 폐쇄하여 언제든지 한 칸 크기의 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물론 한 칸의 길이는 약간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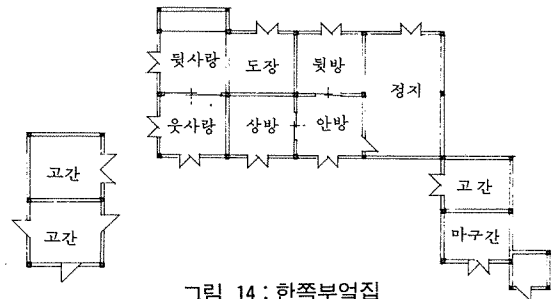


그림 14 : 한쪽부엌집

다를 수 있다). 따라서 6칸 양통집이 규모가 큰 8칸집이 되었을 경우, 살림방을 증가시켜 부엌이 한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

이 때의 간살이는 그림 14(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박남규씨택·80년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6칸집에서 흔히 마련되는 마루는 살림방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되지 않은게 보통이다.

평면의 간살이는 오른쪽에 정지를 놓고, 그 옆의 앞쪽으로 안방·상방·옷사랑, 그리고 뒤쪽으로 뒷방·도장·뒷사랑의 순으로 배열한다. 정지간은 뒤의 부엌공간과 앞의 봉당공간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유물 줄이 여기에 놓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출입문은 앞·뒤·옆에 나 있고 안방쪽의 셋문은 안방으로 연결된다. 안방에는 미닫이 혹은 분합문이 있어 상방과 뒷방으로 계속됨으로써 안방이 집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도장은 뒷방과 뒤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고 사랑방만은, 보통살림방으로 셋문을 시설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밖으로만 시설을 하여 사랑방의 외부지향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상방은 그 기능이 옷방과 비슷하여 우선적으로 결혼 전 아들의 거처방이며 뒷방이 여유가 없을 때는 딸의 방이 된다. 뒷방은 딸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신혼부부의 방이기도 하다. 도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장공간으로만 쓰인다.

이런 집은 규모가 큰 집이기 때문에 <마구간>이 바로 부엌에 걸 달리는 경우란 드물고, 부엌 옆에 7자 모양으로 따로 걸쳐가 배치된다. 이것은 다른 용도의 건물로 마련되지만 최근에는 건물에 덧 붙여서 7자 모양을 이루기도 한다(다음 참조). 이 걸쳐에는 보통 <곳간>과 <마구간>이 놓이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마구간이 부엌과 멀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뒤안과 앞마당이 따로 마련되며, 뒤안은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제한되게끔 시설하고 여기에 장독대와 나무를 심는다. 펌프는 부엌이 가까운 앞마당이나 옆에 놓이는게 보통이며 앞마당에는 담장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집의 구조는 3평주 3량이고 영동지방의 태백산맥 동쪽 원산에서부터 삼척사이에 적지않게 분포한다. 중농에서 조금더 잘사는 자영농 정도의 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근래에 발생한

것으로 믿어진다.

③ 가운데 부엌집

집의 규모가 커질 때, 앞의 것은 살림방이 늘어 나는데 비해 이 집은 경리시설이 증가된 집이다. 따라서 부엌 한쪽에는 살림방들이 오고 다른쪽에는 외양간이나 고방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부엌이 오는 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양간이 판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대신 안살림과는 약간 관계가 먼 살림방—예를 들면 사랑방—등이 놓여지는 경향이 있다.

7. 외양간이 있는 집

이 집은 강원도와 경기도 내륙지방 및 황해도에 널리 분포하며, 특히 동해안쪽에는 함경도에서 울진지역, 경북 산간지대까지 분포한다.

평면의 간살이(그림 15)는 앞뒤 양통으로 나뉘어서 뒤쪽 중앙에 부엌이 오고 그 서쪽으로 아랫방과 옷방이 나란히 배치되며, 동쪽으로는 고방이 놓인다. 부엌 앞에는 아랫방당이, 아랫방 앞에는 옷방당이 배치되어 있고 아랫방당과 옷방당은 서로 개방되어 있는데 옷방당에는 흔히 마루가 깔린다. 아랫방당의 동쪽에는 외양간이 설치되고 옷방 옆에는 사랑방이 놓이며 사랑방 앞에는 전면으로 개방된 툇마루가 시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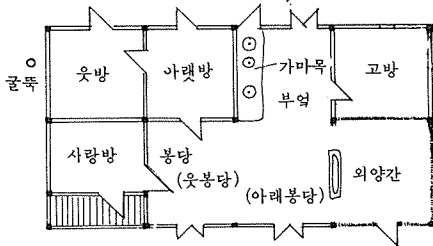


그림 15 : 외양간이 있는 집

부뚜막과 아랫방의 부엌벽 사이에는 <가마목>이라 부르는 공간이 있다. 이것은 다른 지방의 주택에서 가마목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한 용도를 갖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더 크고 함경도 지방에 있는 <정주칸>보다는 훨씬 작아서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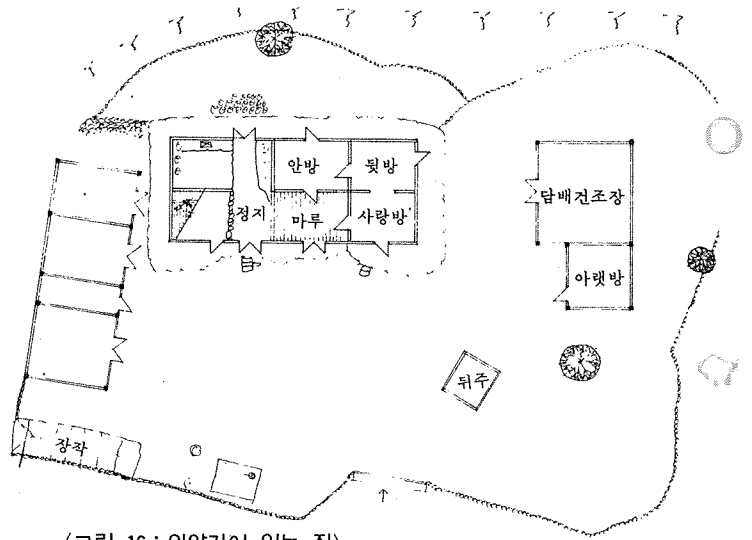
모든 방에는 앞뒤로 문이 나 있다. 뒤뜰은 앞뜰보다 규모가 약간 작으며 울타리가 둘러쳐 지는데 이것은 양통집의 일반적인 특색이다.

광주산맥 동남쪽에 분포된 정주칸이 없는 양통집에는 안방과 옷방의 뒤쪽에 <뒤탄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집인 경우 부엌과 고방, 외양간·봉당 등의 외벽은 판자벽으로 되는 수가 많으며, 외양간은 1자로 꺾어져 뜨럭 아래에 만들어 지기도 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외양간 자리에 사랑방이 들어서고 원래의 사랑방은 <탄방>이 되기도 하며 아랫방 앞의 봉당에는 안방마루가 깔리기도 한다.

이런 집이, 경북 산간지대에 이르면 옷방을 뒷방 또는 도장이라 불리우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두 도장이라 함— 외양간 위에 다락이 시설되는 것이 보통이다(그림 16 :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홍계동 임 태열씨택 · 81년 8월 조사)

이런 집의 경우, 살림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자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마루에서 고방까지 앞과 측면만 그렇게 하고 뒤쪽은 흙벽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외벽을 판자벽으로 하더라도 빈지널처럼 아랫부분인 정두리까지만 판자로 하고 상부벽은 역시 흙벽으로 한다. 물론 심벽처리를 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고방과 부엌공간을 막는데 반해 남쪽에서는 개방하는 경향이 있다.

안방과 아랫방은 비슷하게 이용되며, 옷방과 뒷방 역시 비슷한 기능이지만 옷방이 안방에 딸리는 것이 강조되는 반면



<그림 16 : 외양간이 있는 집>

뒷방은 사랑방에 딸리는 성격이 짙다. 반면 도장은 수장공간의 기능인데 고방이 따로 있음으로 해서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같은 공간 위치에 다른 방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몸채 안에 경리시설이 들어와 있다 해도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집에서는 따로 헛간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앞마당에 놓이며 보통 부엌쪽에 1자로 배치된다. 뒤뜰은 외부와 폐쇄되어 따로 만들어지며 여기에 장독대와 감나무 등이 심어진다. 앞마당에는 뒤주·샘·짚가리 등이 배치되고 담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설사 담장이 있다해도 대문은 시설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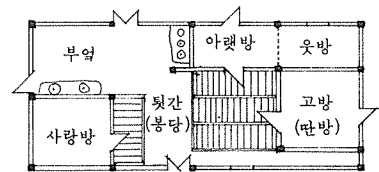
구조방식은 3평주 3량식이며, 대공은 가운데 기둥이 서 있는 위치와는 별로 상관없이 종도리와 관련을 가지면서 세워진다. 한편 부엌·봉당·고방·외양간 사이에 세워지는 기둥은 통재기둥(高柱)으로서 바로 종도리를 받게 한 것도 있다.

이러한 집은 구조방식·간살나누기 등으로 미루어 추측할 때, 상당히 고전적인 양식의 집임을 알 수 있다.

산간지대에 분포하는 이런 집에는 봉당으로 통하는 대문이 외에는 출입문이 거의 없으며 긴 살창이나 세살로 된 들창문이 붙는게 고작이다. 이는 국가의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산간지대에서 도둑에 대한 방어를 고려했기 때문인 듯 하며, 이용하는 계층은 中上의 자영농 계층으로 비교적 잘 사는 집에 속한다.

L. 외양간이 없는 집

몸채에 외양간이 설치되지 않을 때는 외양간 위치에 사랑방이 놓이는 것이 보통인데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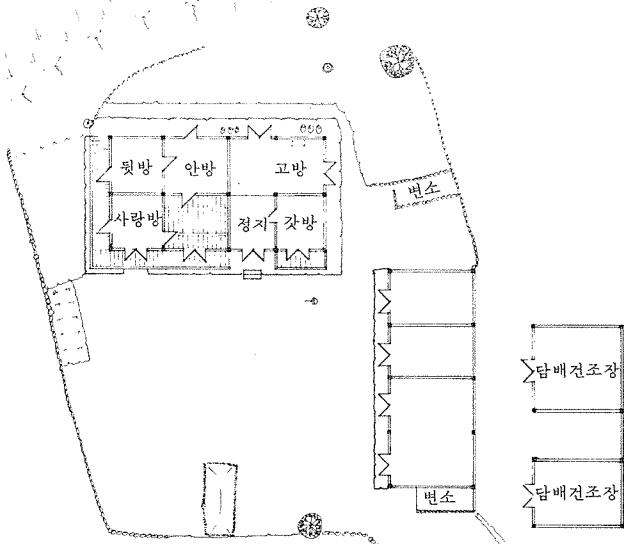
<그림 17 : 외양간이 없는 집>

뒤쪽 칸의 서편에 좌우 2칸으로 부엌이 만들어지고, 동쪽으로 아랫방·옷방이 놓이는데 흔히 이 두 방은 개방되어 통간으로 이용된다. 옷방 앞에는 고방(또는 탄방)이 만들어진 다. 전면의 중앙 좌우 2칸은 봉당으로 쓰여지며, 아랫방 앞에는 마루가 시설되는 수가 많고 안방마루 서쪽의 봉당공간은 헛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면의 맨 서쪽, 즉 외양간의 위치에는 사랑방이 시설되며 헛간쪽으로 뒷마루가 놓인다. 따라서 모든 방의 이용이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봉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방과 판방에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대신 옆으로 긴 창살이나 새살로 된 들창문이 붙는다. 집에는 외부로 난 문이 거의 없고 헛간(봉당)에 대문 하나만을 설치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집들이 남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면구성을 보인다(그림 18:경북 영양군 석보면 홍계동 김 춘택씨택·81년 8월 조사).

이집에서는 부엌이 뒤쪽의 동쪽 2칸에 놓이는데 끝쪽 칸은 고방으로 이용된다. 고방의 앞으로는 갓방이 배열되고 부엌의 서쪽에는 안방과 뒷방이, 그리고 갓방 서쪽에는 봉당·마루·사랑방의 순으로 배치된다. 또한 쪽마루가 갓방 앞과, 마루 앞에서부터 사랑·뒷방의 앞과 옆까지 죽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예보다 훨씬 개방적인 평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8 : 외양간이 없는 집〉

또한 살림방만이 흙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판자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흙벽보다 고전적인 방식인듯 하다. 갓방과 판방은 거의 비슷한 용도로서 건넌방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데, 사랑방과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은 남과 북의 가정 생활에 대한 관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남쪽에서의 갓방은 식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장공간으로 이용되는 수가 많다.

이집 역시 헛간채가 부엌쪽에 1차 모양으로 놓이는데 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편 또한 외부와 폐쇄되어 정원공간으로 잘 가꾸어져 있고, 변소는 헛간채 위의 집 모퉁이에 시설된다. 마당에는 짚가리·넙감더미·텃밭 등이 만들어져 있다.

구조는 3평주5량집으로 대단히 잘 지은 집이다. 따라서 양통집인 경우, 민가는 보통 3량으로 처리하지만 잘 사는 집에서는 5량집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위는 남에서 약간 동으로 돌아 앉은 임좌병향(壬坐丙向)이다.

이용하는 계층은 역시 中上의 자영농 계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중상이라는 뜻이지 경제적으로는 타지역에 비해 풍족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 다. 살림방을 놓는 집

양통집이 태백산맥 서쪽으로 넘어 가면, 그것의 일반적인

특색과는 전혀 다른 경리시설물인 헛간채를 따로 두며 몸채 안에 있던 고방과 마구간 대신 사랑방이 만들어 진다 (그림 19: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2리 이 헌범씨택·77년 8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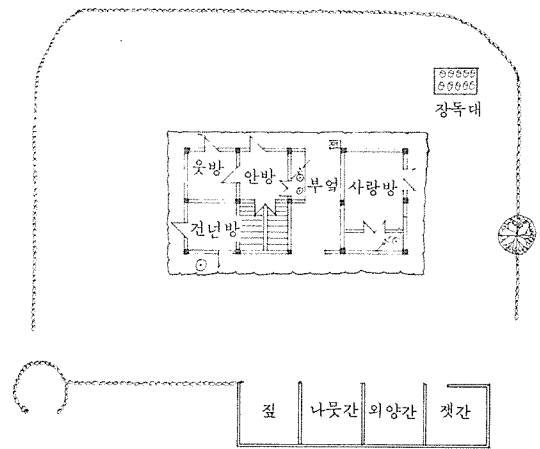


그림 19 : 살림방을 놓는 집

이러한 집은 경기도 내륙 산간지대에 분포하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

구조는 3평주평 4량(三平柱平四梁)집으로 처리되어 중부내륙지방의 일반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방위는 신좌을향(申坐乙向)으로서 북으로부터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양통집인 경우 안방이 뒤쪽에 있음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며 태백산맥 서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평면의 간살이는 앞뒤 양통으로 나누어 뒤쪽의 가운데에 부엌을 놓고 왼쪽으로 안방과 옷방을 놓는다. 부엌 앞에는 봉당공간을 시설하며 왼쪽으로는 (대청마루)와 건넌방을 놓는다. 부엌과 봉당의 오른쪽에는, 상하칸을 통간으로 한 사랑방이 배치된다. 다시 말해서 외양간이 없는 집에서 사랑방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전면의 가운데 마루를 대청마루라 부르는 것은 서쪽의 대청과 동쪽의 마루가 개념적으로 합해져서 발생한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전면이 개방되는 대신 봉당쪽으로 막아진 것은 태백산맥 서쪽의 특징이다. 또한 안방으로만 출입문이 나 있고 건넌방으로는 개구부가 없어 이곳은 사랑방의 성격을 다분히 띄고 있다.

부엌공간과 봉당공간은 개방되어 있고, 각각의 앞과 뒤쪽에 개구부가 있는데 창호가 시설되지 않는 것이 중부내륙의 특징이다. 또한 다른 방으로의 출입시설도 없어 식사를 봉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봉당 전면의 드리를 통하여 마루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이 편리한 공간이용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사랑방 앞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는 벽장이 만들어져 있다. 출입문은 오른쪽 바깥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랑방으로의 동선이 안살림과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옷방에는 안방과 연결되는 섯문이 있으나 건넌방과의 사이에는 없어, 옷방이 안방에 소속되는 수장공간의 성격임을 말해 준다.

헛간채는 안채 맞은 편에 사랑방쪽으로 치우쳐서 안채와 나란히 놓여진다. 이것은 4칸 맞걸이 구조로서 갓간·외양간·나뭇간·헛간으로 구성된다. 갓간은 4면이 토담으로 싸여 있고 오른쪽 측면에 출입구를 두어 짚으로 짠 <섬>으로 가리고 있다. 외양간과 나뭇간·헛간은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안마당과 연결되며, 다른 벽들은 간시설로 막아져 있다.

이 집으로의 출입은 마당 동쪽에서 할 수 있으며, 대문시

설은 없으나 건물의 뒤쪽은 간단한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그러나 뒤안공간은 만들지 않았고 바로 앞마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독대는 뒤쪽에 놓인다. 또한 앞마당이 협소하고 집주위에는 대추나무와 밤나무 등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다. 이러한 집의 발생은 20세기 초 이후라고 믿어지며, 이 용계층은 중상층에 해당된다고 본다.

영동지방에서는 집안의 생활이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엌을 크게하고 평면의 배열을 달리하는 수가 있다. 즉 그림 20(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신 복수씨택·80년 6월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통간의 앞쪽 가운데에 봉당을 놓고 왼쪽으로는 <큰구들>과 사랑방을 배치한다.

봉당 뒤에는 부엌이, 그리고 그 왼쪽으로 뒷방·도장의 순으로 배열된다. 이것은 영동형 구들집의 평면과 거의 같은데, 다만 오른쪽 앞으로는 마루가, 뒤로는 천년방이 마련된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의 마루방은 일단 식사공간이 되어 봉당쪽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출입구만이 있을 뿐이다.

<정지간> = (부엌+봉당)에는 앞뒤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좌방과도 연결되는 출입문이 시설되어 있어, 이 집의 생활은 완전히 정지간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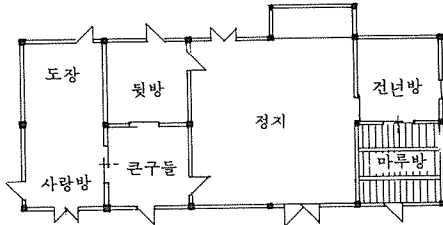


그림 20: 살림방을 놓는 집

④ 정주간이 있는 집

이 집은 8칸집으로서 정주간이 있는 것이 특색인데 낭림산맥의 북쪽 함경북도 지방에 분포한다(그림 21).

집의 중앙 뒤쪽에는 부엌이 있고, 부엌 앞에는 부엌과 서로 개방되어 있는 <바당>이 놓인다. 이곳의 서쪽은 부뚜막이 되어 솔이 걸리고 안쪽으로는 이른바 정주간이 만들어진다. 정주간 앞쪽에는 작은방이 마련되기도 하는데, 요즘은(20세기 중반)에는 두지 않는 경향이 많다.

정주간의 서쪽 뒤로는 안방과 고방이 차례로 놓이며 그 앞으로는 셋방과 웃방이 배치된다. 그리고 이들 방 앞으로는 전면이 개방된 뒷마루가 시설된다. 부엌의 동쪽에는 방앗간이 만들어 지고 그 앞에는 외양간이 배치되며, 외양간과 마당 사이에는 구유가 놓여져 경계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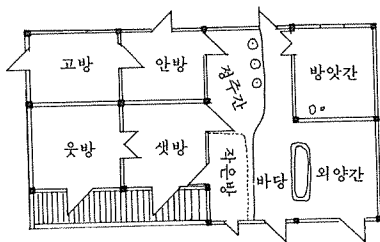


그림 21: 정주간이 있는 집(함북)

이런 집들의 앞뒤로는 각각 뜰이 있으며 대개 부속사 없이 구성된다. 웃방과 셋방에는 쌍미달이인 이중문을 달고 고방의 굴뚝쪽에는 광창(光窓)을 시설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큰 출입문을 달기도 한다. 그리고 방앗간의 광창은 보통 동쪽으로 낸다.

이 집의 생활은 정주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식사와 잠자리, 가족의 모임 등을 갖는다. 그러나 남자 어른들은 거처하지 않고,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방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주간과 부엌 사이에 솔이 걸리고 정주간 뒷벽에는 <조왕간>이라 불리우는 시렁이 시설된다. 정주간은 아궁이에 불을 났을 때 더워지는 실내온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주거공간이다. 따라서 부엌과 정주간은 외부와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며 집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정주간이 있는 집에서는, 부엌과 정주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 방과 경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방의 벽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려한 것인 듯하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양통집은 방을 두줄로 배치함으로써 적어도 칸막이 벽이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방은 다른 지방의 사랑방에 해당된다. 웃방은 아들부부나 장성한 자녀들이 거거하며, 젊은 부부가 이 방을 쓰게 될 때면 신혼살림을 들여 놓고 아기자기하게 꾸며 쓴다. 셋방과 안방 사이에는 가끔 셋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웃방과 고방 사이에는 <사당방> (또는 사랑방이라고도 한다)이 있는데 이곳에는 신주를 모셔 놓는다. 바당은 그 기능이 봉당과 거의 같다. 이 집의 특징은 방앗간이 집의 몸체 안에 시설된다는 점이다. 함경북도에 분포하는 이런 집에서는 중농 이상의 자영농들이 살고 있다.

8칸의 정주간이 있는, 함경남도의 보편적인 주택평면은 다음과 같다(그림 22).

집의 중앙에 자리한 정주간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아랫방과 웃방을 차례로 놓고, 이들 방의 뒤로는 대략 반칸 크기의 아랫고방과 웃고방이 배치되며, 앞으로는 전면이 개방된 토방에 마루를 깔다. 정주간의 왼쪽에는 서로 개방된 부엌과 <바당>이 만들어지고 부엌의 왼쪽 뒷면에도 바당공간이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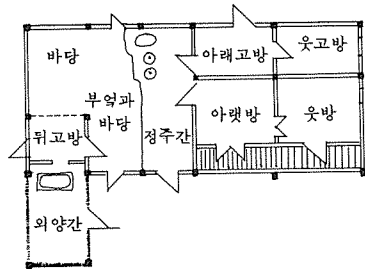


그림 22: 정주간이 있는 집(함남)

되어 설치된다. 그것의 앞으로는 뒷고방이 배치되고 뒷고방 앞에는 본채와 덧대어 외양간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방앗간은 일반적으로 몸체에 시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채를 따로 두는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몸체의 칸 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이 지방의 주거 풍습인 듯하다.

사랑채를 따로 두는 경우는 외통집의 통례이다. 사랑채를 옆채로 가질 경우엔 사랑방·사랑정주간 및 바당·고방·수레간, 때로는 대문간으로 구성된다. 사랑채를 앞채로 가질 경우는 대문간을 반드시 두게 된다. 만일 대문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지붕이 달린 대문으로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랑채나 경리시설물을 가지는 경우와는 달리 몸체의 규모가 보통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즉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은 8칸집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작은 6칸집이나 그 이하의 크기로 되기도 하는 것이다. 6칸집이 되면 8칸집에 설치된 (웃)고방과 웃방이 없어지게 되나 그보다 작은 4칸집이 되면 외양간과 방앗간마저 없어지게 된다(이것은 III자집 평면과 같다). 정주간이 있는 양통

집이 4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더 줄어들게 된다면 그 때는 3칸이나 4칸 외통집으로 변한다. 이처럼 집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5) 살림방이 증가된 집

① 정주칸이 없는 집

정주칸이 없는 양통집은 8칸이 보통이나 확장될 경우에는 10칸이 되며, 확장된 부분은 살림방이 된다. 여기에다가 행랑방과 부엌·외양간 및 고방으로 구성되는 행랑채를 갖는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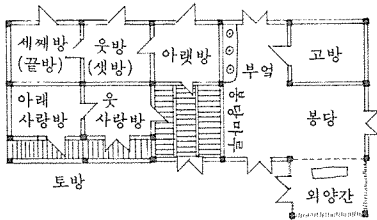


그림 23: 살림방이 증가된 정주칸이 없는 양통집(강원도고산지방)

평면의 간살이는 뒤쪽 중앙에 부엌을 두고, 그 서쪽으로 아랫방·옷방·세제방이 차례로 배치되며 동쪽으로는 고방이 시설된다. 부엌 앞은 봉당이 되고 그 왼쪽으로 <봉당마루>와 옷사랑방 및 아래사랑방이 놓이며 사랑방 앞으로는 <퇴방>(뒷마루)이 시설된다. 고방 앞에는 외양간이 시설되기도 하나 외양간이 몸채 앞쪽으로 나와 배치되고 외양간의 자리까지 봉당을 넓혀 쓰기도 한다. 다만 앞에서 말한 8칸 양통집과 다른 점은, 집의 왼쪽 끝에 세제방과 아래사랑방을 더 늘려 지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끝방이 도장으로 이용되고, 대신 부엌 서쪽의 고방과 외양간의 위치에는 갯방들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살림방이 증가되는 것은 농가의 생활이 악화된 근래의 일이라 생각된다. 살림방의 친정은 고미반자로 하고 마루는 연등천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마루 위에도 서까래를 평으로 걸쳐 평반자를 하는 수가 자주 있다.

이런 집에 따로 결채로서 독립채를 가질 경우, 행랑채라 부르는데 행랑채는 행랑방·부엌·외양간·고방 등으로 구성된다. 뒷뜰과 앞마당이 따로 마련되며 뒷뜰에는 과일나무와 우물·장독대 등이 놓이고 변소는 집의 모퉁이에 만들어진다.

강원도 고산지대의 부유한 농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그다지 많이 분포하는 것 같지는 않다.

② 정주칸이 있는 집

양통집은 경리시설물은 단채로 부설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에는 단채를 가진 양통집을 살펴 보자(그림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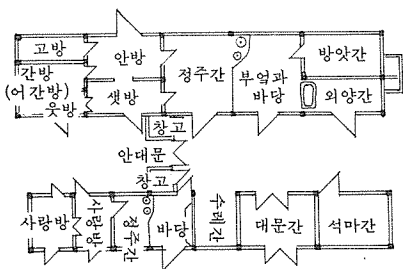


그림 24: 부속건물을 가진 정주칸 있는 양통집(함경도)

이 집은 본채와 사랑채가 두이(二)자 모양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에 안대문을 세로로 덧달아 뽀뽀로써 집 전체의 모양은 ㄷ자 꼴이 된다. 이런 집에 부설되는 사랑채는 외통집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면의 상세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채 = (몸채)는 앞에서 얘기한 정주칸이 있는 양통집과 거의 비슷한데 집의 가운데에 부엌과 바당공간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부뚜막과 연결되어 정주칸이 마련된다. 정주칸 왼쪽에는 앞으로 셋방과 뒤로 안방을 배치하고, 다시 그 왼편에 앞에서부터 옷방·어간방·고방 순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어간방을 따로 마련되지 않고 옷방과 고방만으로 된 집도 더러 있다. 부엌과 바당의 오른쪽에는 뒤로 방앗간과 앞으로 외양간이 배치되며 외양간과 바당 사이에는 구유통이 놓여져 경계를 짓고 있다.

사랑채에는, 부엌 맞은 편에 대문이 시설되고 그 오른쪽에는 석마간이 배치되며 왼쪽으로는 수레간이 안마당 쪽으로 개방되어 배열된다. 그리고 차례로 바당공간과 정주칸이 놓이고, 그 왼쪽으로 사랑방 2칸이 배열된다. 안대문은 몸채의 정주칸과 사랑채의 정주칸을 연결하여 주거공간과 영농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안대문간의 양편에는 창고가 시설된다.

함경북도 지방에는, 원래 정주칸과 셋방 사이에서 시작하여 몸채를 둘러싼 앞담장까지를 안대문이 달린 담장으로 연결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거공간과 영농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내외 풍습에 따라서 아녀자의 공간과 남성의 활동공간을 경계짓는 구실도 했던 것이다. 사랑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통집인 것이 통례이지만 몸채와 수직으로 앉아서 ㄱ자집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문이 사랑채 안에 시설되지 않을 때에는 지붕이 있는 별개의 건물로 시설된다. 이런 집은 함경도의 평야지대에서 부농의 집으로 이용된다.

③ 근세형집

20세기 초에 이르러, 조선조의 신분제에 의한 집의 규모 제한이 사라지면서 집을 크게 짓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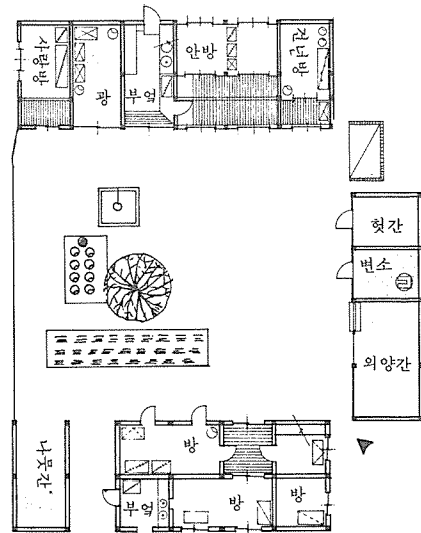


그림 25: 근세형 집

부내륙 지역에서는 결집과 유사한 양통집 형태가 크게 유행한다. 이 경우 주생활의 중심이 되는 부엌이 집의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한일자집이 지어졌던 곳에서 많이 쓰여졌다. 구조방식은 1고주평 4량과 3평주평 4량 덧서까래여서 중부내륙 지방의 특색을 보여준다(그림 25: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 2리 최 대영씨택· 77년 8월 조사).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 6칸, 측면 2칸으로서 왼쪽부터 앞으로 뒷마루, 그리고 뒤에 사랑방을 두며 그 옆으로는 앞뒤 칸을 개방하여 광을 둔다. 다음은 집의 가운데가 되며 앞뒤 칸을 개방하여 부엌을 만들었다. 부엌 오른쪽 2칸은 전후로 나누어, 앞쪽은 마루로 쓰고 뒤쪽은 안방으로 이용한다. 맨 오른쪽 칸에는 뒷마루가 마루로 연결되며, 뒤로는 건넌방이 놓인다.

마루 전면은 4짝 미서기 유리문으로 연속되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나타난 기법이다. 바깥 측면은 막아졌고 부엌과의 사이에는 샅문이 있어 밥상을 들이는데 이용한다. 안방 및 건넌방과 마루와의 사이는 창호지를 바른 4짝 미서기문이 계속되어 대단히 개방적인 면은 볼 수 있다. 뒤쪽으로도 채광을 위한 미서기창이 시설되는데 이런 수법들은 건물에 유리를 사용한 이후의 일이다.

부엌에는 앞으로 미서기문과 뒤로 미달이문이 만들어 진다. 부뚜막은 안방쪽에만 시설되고 상부에는 벽장을 설치하며 부엌 상부는 다락으로 이용된다. 광에는 전면에만 출입문이 있고, 사랑방에도 전면에 미서기문이 중복해서 놓여지며 측면에 채광창이 나 있다. 이런 집은 대단히 큰 집으로서 보통 3~4채로 구성되며 안채 맞은 편에 도로와 면해서 사랑채가 배치되고 마당을 중심으로 동쪽에 헛간채가 놓인다.

사랑채 또한 양통집으로서 정면 4칸 측면 2칸집이다. 맨 동쪽 앞뒤 칸은 온돌로 꾸몄고 이 방 서쪽 옆의 마당쪽으로 마루가 설치된다. 마루의 서쪽 옆에는 좌우로 긴 방을 만들고 있다. 마루 남쪽에는 다시 가로로 긴 방이 양통으로 배치되며 이 방의 서쪽에 부엌이 놓인다.

헛간채는 안채와 사랑채의 모에 놓이며, 크기는 3칸이고 맞걸이 3량이다. 남쪽 두 칸은 외양간으로 만들었고 외양간의 북쪽에 번소가 배치된다. 외양간의 구유통은 중앙칸에서 안마당쪽으로 놓여지며 번소의 출입문도 안마당쪽으로 나 있다. 번소간의 북쪽에는 헛간채의 벽에 의지해서 헛간을 붙여 달고 있다.

사랑채의 서쪽에는 2칸의 나무청을 배치했고 안채의 동쪽에 헛간채와 한줄로 돼지우리가 만들어져 있다. 대문은 헛간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으며 출입을 위한 시설물은 없다. 안마당의 부엌 앞에는 펌프가 시설되었고 주변에는 양회로 만든 네모 난 샅터가 있으며 그 앞으로 장독대가 놓인다. 안마당의 서쪽은 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장이 없고, 나머지 모든 건물의 외벽이 담장 역할을 하며 다만 안채와 헛간채 사이에 짧은 담장이 설치된다.

이 집은 20세기 중엽에 지어졌고, 한옥 기와지붕으로(반)쪽 소로를 붙인 소로수장집이며 대지주의 부농집이라 할 수 있다.

(6) ㄱ자 모양집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집의 규모가 커지자 한일자 모양집으로는 집의 길이가 길어져 주부의 동선이 길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집을 ㄱ자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되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중부 경기지방의 구조방식이었으나 평면의 구성방법은 이 지역의 생활관습과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즉 중부지방에서는 집이 안방에서 구부러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부엌에서 덧달아 가는 형식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이다.

즉 6칸집이나 8칸집의 평면에 부엌 바깥으로 경리시설을 덧붙이는 종래의 방식과는 달리, 이것을 ㄱ자로 구부러진 곳에 덧달아 가는 방식으로서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6 : 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박용문씨택 · 80년 6월 조사).

부엌은 왼쪽에 상하칸으로 두고, 오른쪽의 앞쪽으로는 안방·옷방·사랑방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뒷방·도장·골방이 차례로 배치된다. 부엌의 앞으로는 ㄱ자로 구부러진 모양의 곳간이 배치되는데 보통은 <마구간>·<곳간>의 순으로 놓인다. 물론 근래에는 외양간이 단채로 나가고 이곳을 곳간이나 헛간으로 대신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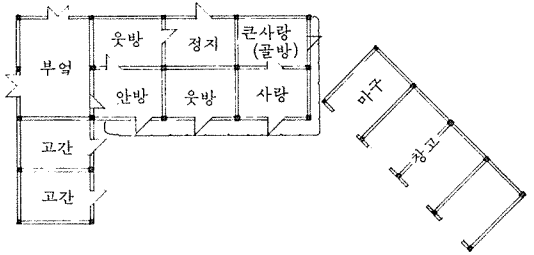


그림 26 : 강원도 명주군 사천진리 박씨집

이런 경리시설은 원래 단채로 부엌 앞에 지어졌던 것이나 근래에 와서 ㄱ자 모양의 구조 방식이 가능케 되므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 믿어진다. 이런 집이 규모가 커질 때는 헛간채를 단채로 둔다. 이는 중농 이상의 부농들이 이용하는 집이며 보통 대가족을 수용하는 경우 안방은 부모, 옷방은 신혼부부, 뒷방은 딸, 사랑방은 아들의 방으로 이용된다.

(7) 사방집

사방집은 세겹집이라고도 부르는데, 집이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똑 같다는 의미에서 사방집이라고도 하고 방이 3겹으로 되었다고 해서 세겹집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것은 까치구멍을 부엌 위에 시설하므로 까치구멍집이라고도 부르나 후자는 안동지방의 양통집(까치구멍집)까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전자가 집의 평면 구성에 의한 분류라 한다면 후자는 구조적 형태에 따른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집은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과 함께 광주산맥 동남(철령 이남)지방에서부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경기·강원을 거쳐 충북·경북의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적은 수자가 분포한다. 또한 이것은 오래된 양식의 집인듯,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가게 등의 특수용도에 자주 이용된다. 농가로서는 큰 집으로 산간지대에서는 부농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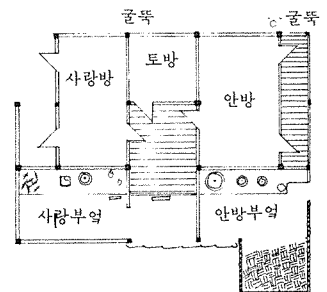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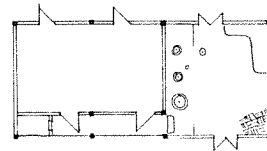


그림 27 : 9칸 사방집

평면구성은 3칸×3칸의 9칸집과 4칸×3칸의 12칸 집이 있는데 집의 모양은 전자가 바른베모꼴이고, 후자는 긴베모꼴이다. 대문은 짧은 변쪽으로 내고 있어 우리나라 민가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들어가는 건물이다. 까치구멍(합각)도 대문쪽을 향해 있어 옆으로 들어 가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마당은 방 앞에 있어서 뒤뜰처럼 대문 앞의 공간과 구별된다.

9칸집의 평면구성(그림 27: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74년 7월 조사)은 왼편에서 앞으로부터 큰방부엌·큰방·웃방이 놓여지고 중앙에는 봉당·공청·고방의 순으로 배열되며 우측으로는 사랑부엌·아래사랑방·웃사랑방이 차례로 배치된다. 큰방과 웃방의 좌측면 및 아래사랑방과 웃사랑방의 우측면에는 뒷마루가 각각 깔려 있다. 사랑부엌에 덧붙여져 앞쪽으로 외양간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이처럼 외양간이 몸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정주간이 없는 양통집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처마만 길게 빼서 그 아래에 만드는 것이다.

이런 집이 남쪽으로 오면 안방과 웃방을 터서 크게 한방으로 쓰며, 사랑방도 그렇게 하고 고방을 광이라 불러 헛구들(불이 들지않는 구들)을 놓기도 한다. 봉당은 뜨락이라고 하기도 하며 대문없이 전면을 개방하고, 사랑방 옆에는 마루를 시설하지 않고 흙바닥으로 쓰기도 한다.

봉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대문이 주출입문이며, 나머지 보조 출입문으로는 판자로 된 사랑부엌문과 외양간문이 있다. 모든 살림방에는 외부에서 직접 들어 갈 수 있는(지계)문이 나 있고 웃방에는 광창도 시설되어 있다. 일단 집안의 주출입문인 대문을 들어서면, 봉당을 지나 <공청> = (대청)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 방으로 통하는 문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봉당과 공청 사이는 벽이 없이 개방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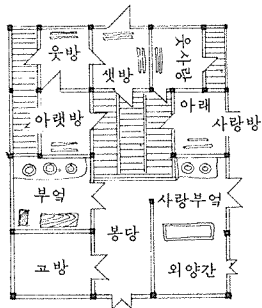


그림 28: 12칸 사랑집

고 사랑부엌과 외양간은 구유가 놓여져 구분되고 있다. 뒷마루 앞은 여느 집과 같이 개방되어 있다. 부엌과 봉당은 흙바닥이고 공청에는 마루가 깔려 있으며 각종 방은 구들로 되어 있다.

12칸 사랑집(그림 28)은 기본적으로 9칸집과 같으며 전면에 3칸이 덧붙여 진다는 점이 다르다. 덧붙인 3칸은 집의 앞에 붙어서 몸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 오른쪽의 외양간과 왼쪽의 고방 및 기존의 봉당으로부터 이어져 확장된 봉당으로 이루어진다. 대문 옆에 설치되는 원래의 고방은 <셋방>으로 바뀌어서 살림방이 된다. 사랑집에 있어서의 공청은 외통집의 대청과 그 형태와 기능면이 매우 유사하다.

집의 구조는 대부분 전면과 양측면의 외부에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뼈대식 방법을 쓰며, 나머지는 토담이나 귀틀을 둘러서 그 위에 도리만을 얹는 절충방식을 쓰고 있다. 지붕틀의 구조법은 2고주5량(二高柱五樑) 방식과 같으나 다만 퇴보(개보)가 한 칸 크기로 긴 것이 다르고 종도리 끝에 까치구멍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사랑집은 6칸 양통집(특히 안동형)에 3칸 외통집의 방 배열방법을 결합하여 발전시킨 형태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집은 그 규모가 크고 건설 공정이 복잡하며 좋은 건설자재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짓는다. 그러나 채광과 통풍이 잘 안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치안능력이 미치지 못하던 산간지방에만 분포되어 있다.

## (8) 결론

민가에 있어서의 양통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토의 거의 반인 태백산맥 동쪽의 주민들의 집이며 대단히 오래된 양식이란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6칸 양통집은 고대에 완성된 평면이라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외형이 가야(伽倻)의 가형토기(家型土器: 지붕이 기와이고 외벽에 창과 문이 그려진 것)와 똑같기 때문이다. 이것의 구조방식은 3평주3량으로, 종도리는 내밧보 방식의 구조기법을 쓰고 지붕의 모임부분에는 소위 <까치 구멍>이라고 하여 합각 처리한 것이 구조방식에 있어서의 전혀 빈틈이 없는 완성기같은 느낌을 준다.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다른 구조면에서 설명되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붕의 합각(까치 구멍-부엌의 연기가 빠지기 위한 구멍)의 구조처리가 절묘해서 완벽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평면의 구성도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었으며 앞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부지역 주택의 평면구성과는 구분된다. 이들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안동지방의 것과 또 하나는 영동지방의 것, 그리고 세번째로는 함경도의 것이 있다. 첫째는 경리공간과 살림방이 앞뒤로 나뉘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들이 좌우로 나뉘며, 세번째는 부엌과 살림방 사이에 <정주간>이 놓이는 형이다(III자집과 사랑집은 엄밀하게 양통집과는 구분되나 그 줄기는 같은 것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함했다). 오래된 집에서는 집안의 가운데에 마루(대청)가 있기 마련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공간이 구들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루는 남방·구들은 북방」이란 설은 상당히 근거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의 살림집 자리에서는 자주 온돌시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토성리유적), 동시에 고구려 벽화에서는 마루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미천왕릉, 약수리 벽화무덤, 안악 2호무덤, 춤무덤 등) 따라서 구들의 연원도 오래지만 마루의 연원도 그 이상으로 오랜 것으로 보인다. 마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평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좌식(坐式)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통집의 평면에는 서쪽지역의 외통집 평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안동형의 마구간 있는 마루집(그림 3)에서 경리시설인 마구간과 봉당을 없애면 바로 곱은자(ㄱ자) 집이 됨을 알 수 있고, 영동형의 마루집(그림 3)은 제주도의 3칸집(작은방 없는)과 유사하다. 또한 8칸 가운데 부엌집의 외양간이 없는 집(그림 16)은 삼남지방에서 널리 이용되는 4칸 퇴집 또는 4칸 겹집과 유사한 평면형태를 갖는다. 더구나 6칸 양통집은 전면으로 살림방이 증가되어 사랑집(세마루집)이 되고 이것은 빠리집·모자집과 그 평면형태가 연결된다. 필경 양통집의 평면은 우리나라 민가의 고전적 양식으로서, 여기서부터 많은 갈래가 나왔다고 믿어진다. (한국민속대관 2, p. 651 참조) (\*)